

현대·기아차 신형 싼타페·투싼·K9으로 북미시장 공략

'2018 뉴욕 국제오토쇼' ...세계 차량 1000여대 한자리에



기아차 'THE K9'

오는 8일(현지시각)까지 미국 뉴욕 제이콥 재비츠센터에서 열리는 '2018 뉴욕 국제오토쇼(New York International Auto Show)'는 현대·기아차를 비롯한 전세계 차량 1000여대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자리다. 특히 현대·기아차동차는 이번 오토쇼에서 신형 싼타페와 투싼, K9 등 전략 모델을 공개하며 북미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현대차, SUV 라인업 강화=현대차는 이번 '뉴욕 오토쇼'에서 1603㎡의 전시 공간을 마련, 신형 싼타페, 투싼 페이스리프트, 코나 등 다양한 SUV를 선보인다.

현대차는 우선, 투싼 페이스리프트(부분변경) 모델을 세계 최초로 공개, 미국 진출(2004년) 이후 지난해 처음으로 10만대 판매를 돌파하는 등 인기를 이어가겠다는

현대차 SUV 라인업 강화

투싼 페이스리프트 공개

기아차 '더 K9' 신기술 적용

렉쏘·쏘울 등 친환경차 눈길

전략이다.

투싼 페이스리프트 디자인은 전면부의 새로운 캐스캐이딩 그릴과 풀 LED 헤드램프, 후면부의 변화된 리어 범퍼 및 리어 콕비램프, 18인치 알로이휠을 포함한 3종의 신규 휠 등으로 완성됐다.

신형 싼타페와 코나 일렉트릭은 북미 시장에 처음 선보인 차량이라는 점에서 현지인들의 눈길을 끌었다.

싼타페는 지난해 2000년 미국에 처음 진출한 뒤 현지 누적 판매량이 150만대를 돌파했고 지난해 사상 최대 판매(13만여대)를 기록하는 등 현대차의 대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로 자리잡았다.

신형 싼타페는 6년 만에 플랫폼(완전변경)된 4세대 모델로 커진 차체에 디자인 변화, 안전 하차 보조(SEA) 및 후석 승객

알림(ROA), 후방 교차 충돌방지 보조 등 첨단 안전장치를 갖춘 게 특징이다.

소형 전기차 코나 일렉트릭도 북미 시장에 데뷔했다. 코나 일렉트릭은 64kWh의 배터리와 최대 출력 150kW의 전용 모터를 탑재해 1회 충전 시 최대 402km(미국 기준) 주행이 가능하다.

현대차는 이번 오토쇼 기간 중 신차 6대와 벨로스터, 코나, 엑센트 등 양산차 8대 등 18대의 차량을 전시 중이다.

◇기아차, '더 K9' 첫 공개=기아차는 뉴욕오토쇼를 통해 'THE K9'(현지명 K900)을 글로벌 시장에 처음 선보였다.

6년 만에 완전히 바뀐 모델로 선보이는 더 K9은 차량 곳곳에 '감성, 품격, 기술이 결합된 플래그십 세단'을 목표로 한 기아차 의지가 엿보이는 차량이다.

현대·기아차 모델로는 처음으로 색상 관련 권위 있는 기관인 '팬톤 색채 연구소'와 공동 개발한 7가지 테마 색상, 스위스 명품 시계 브랜드 '모리스 라크로아'의 아날로그 방식 시계를 적용했다.

미국에는 최고출력 370마력, 최대토크 52.0kgf·m의 힘을 내는 3.3 터보 가솔린 모델이 4분기 중 출시될 예정이다.

기아차는 1568㎡ 규모의 전시 공간에서 더 뉴 K5(현지명 옵티마)와 더 뉴 카니발(현지명 세도나)도 선보였다. 더 뉴 K5는 올 하반기, 더 뉴 카니발은 올 상반기 중 미국 시장에 출시된다.

◇친환경차도 눈길=현대차는 이번 뉴욕오토쇼에 친환경차 4대(렉쏘, 아이오닉, 쏘나타)를 선보였고 기아차는 니로·K5 하이브리드, 니로·K5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쏘울 EV 등 친환경차 5대를 전시하면서 친환경기술 선도 기업으로서 이미지를 강조하는데 주력한다.

기아차는 전시공간에 에코 존을 별도 마련, 북미 고객들에게 기아차의 친환경차들을 적극 소개하고 있다. 제네시스 브랜드도 전기차 기반 콘셉트카 '에센시아 콘셉트(Essentia Concept)'를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 김지윤기자 dok2000@



현대차 투싼 페이스리프트



현대차 신형 싼타페



현대차 코나 일렉트릭

침수·사고로 폐차 차량 중고차 시장서 사라질까

국토해양부 '폐차이행 확인제' 시행

국토해양부는 2일 침수나 심각한 사고로 폐차될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폐차이행 확인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폐차이행 확인제는 보험사에 의해 전손(전부손해) 처리돼 폐차장에 넘겨진 차량이 제대로 폐차됐는지 확인하는 제도로, 폐차를 위해 전손 차량을

인수한 폐차업자는 한 달 안에 차량을 폐차·말소해야 한다.

정부는 보험사의 폐차 대상 차량 목록을 전달 받아 해당 차량을 인수한 폐차업자가 기한 내 폐차 처리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추적하고 여건 업체에 대해서는 자치단체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불법 유통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고발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형사고나 침수 등으로 수리비가 차량 가액을 초과한 차량의 경우 보험사가 차량 소유주에게 차량가액을 지급한 뒤 전손처리, 처분하는데, 일부 폐차업자들이 폐차 대신, 수리해 불법 유통하는 데 따른 우려가 제기돼 왔다. / 김지윤기자 dok2000@

한국GM 국내 판매량 3월에도 절반 급감

4만1260대 팔려 전년 동기보다 19% ↓

한국지엠(GM)의 국내 자동차 판매량이 2월에 이어 3월에도 1년 전 절반 수준까지 급감했다.

군산공장 폐쇄 발표로 불분명 '철수설'이 국내 소비자들의 구매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자동차업계는 분석했다.

2일 한국GM에 따르면 3월 총 판매

대수는 4만1260대(완성차 기준)로 작년 같은 달보다 18.9% 감소했다.

특히 내수(6272대)는 57.6% 줄었고, 같은 기간 수출(3만4988대)도 1년 전보다 3% 뒷걸음질했다.

올해 누적(1~3월) 판매량(12만386대)도 작년 같은 기간보다 15.8% 적은 상태다.

전반부진 속내 차종별로는 쉐보레 스파크, 크루즈, 캡티바, 올란도 3월 판매량이 그나마 2월보다 각각 5%, 14.9%, 56.8%, 20% 늘었다.

판매 부진 타개를 위해 지난달부터 시작된 보증기간 연장, 중고차 가치보장, 할인 등을 포함한 '쉐비 프로모스' 프로모션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 김지윤기자 dok2000@kwangju.co.kr

호남지역 대표주자 YHB집진기 산업현장/요식업분야 환경을 확보드립니다

Y31Y AS24 YHB 31년의 역사와 기술이 요식업소, 산업현장 미세먼지/오일미스트/연기를 완벽히 제거합니다

미스트 크리너

하나의 바디, 네가지 기능 미스트크리너를 새롭게 개발하다



머시닝센터, CNC 선반, 밀링가공 방전가공 외 미스트 발생 공작 기계

요식업소용 전기집진기

직화구이 연기, 미스트, 미세먼지 민원해결사



직화구이점 미세먼지 배출주의보 발령 대기오염 규제 대응 해결책

더스트 크리너

백필터/카트리지/사이클론 형



그라인더작업, 금속절단가공, 드릴작업, 아크릴가공 절삭작업, 파쇄, 석재가공 등 분진 발생하는 작업